

잠잠한 FA 시장... 애타는 동료들 “팀에 꼭 필요한 선수, 잡아주길”

삼성 구자욱 “오승환, 우리팀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
LG 오지환 “임찬규, 정말 필요한 선수... 돈 많이 주셨으면”

스토브리그가 한창이지만 자유계약선수 (FA) 계약 소식은 잠잠하다. 지난달 29일 내야 수 양석환이 원 소속팀 두산 베어스와 4년 78억원의 계약을 맺고 잔류한 이후 열흘 넘게 추가 FA 계약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각 팀의 협상 테이블이 다소 더디게 흘러가는 가운데 동료들도 애가 타고 있다. 큰 힘이 되어주는 FA 동료와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11일 골든글러브 시상식 후 만난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은 FA 협상 중인 팀 선배 오승환의 이야기가 나오자 “(계약을 위해) 내가 어필을 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2005년 삼성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뛰어들

오승환은 KBO리그 최초 400세이브 고지를 밟은 최고 마무리 투수다. 미국, 일본 무대에서도 활약하며 ‘끝판대장’의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다. 2023시즌 뒤 FA 자격을 얻었지만, 계약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이날 골든글러브 외야수 부문 수상 후 가장 고마운 사람으로 오승환을 꼽기도 했던 구자욱은 “승환이 형은 우리 팀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가 아닌가. 레전드이기도 하고, 범접할 수 없는 경험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기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승환이 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수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10개 구단 통틀어 몸 상태가 제일 좋을 거

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말을 현실로 이뤄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좋은 계약이 성사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오승환에 힘을 실어줬다.

1994년 이후 29년 만의 통합 우승을 일궈낸 LG 트윈스 오지환도 팀 동료인 임찬규의 FA 계약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2022시즌 뒤 FA 자격을 얻었던 임찬규는 부진했던 성적 탓에 ‘FA 제수’를 결심했다. 그리고 올해 중간 수투로 시즌을 출발했지만 안정적인 투구로 이내 선발로 자리를 잡고, 14승3패1홀드 평균자책점 3.42를 기록했다.

개인 한 시즌 최다승을 올리고 팀 우승에 일조한 임찬규의 계약 규모는 아직부터 관심을 모았지만, 아직 도장을 찍진 않았다.

오지환은 임찬규에 대해 “팀이 꼭 잡아야 하는 선수”라며 “사실 올해 선발 투수로 시작한 게 아닌데 선발에서 자리를 잡았다. FA를 1년 미루면서까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기록이



말해주듯 팀에 정말 필요한 선수”라고 말했다. 이어 “(구단에서) 돈을 많이 주셔서 계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웃음 지었다.

뉴스

오지환, 유격수 골든글러브 주인공... ‘우승’ LG, 수상자 3명 배출

‘9번째 황금장갑’ 양의지, 최다 수상 단독 2위... 오스틴, 최다 득표 영예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허규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와 각 부문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래 왼쪽부터 NC 박건우, 두산 양의지, 허 총재, NC 손아섭, LG 오지환. 위 왼쪽부터 한화 노시환, 키움 김태성, 삼성 구자욱, LG 홍창기.

LG 트윈스의 ‘캡틴’ 오지환이 올해 골든글러브 최대 격전지로 꼽힌 유격수 부문에서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오지환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솔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유격수 부문 수상자로 호명됐다.

올 시즌 KBO리그를 담당하던 미디어 관계자 투표에서 오지환은 총 유효 투표수 291표 중 154표(득표율 52.9%)를 획득했다. 120표를 받은 2위 박찬호(KIA 타이거즈)를 34표 차로 따돌렸다. 지난해 프로 입단 14년차에 처음으로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받은 오지환은 2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다.

올해 골든글러브에서 유격수 부문은 최대 격전지로 손꼽혔다. 오지환과 박찬호의 2파전 양상이었다.

오지환은 올해 정규시즌에 타율 0.268 8홈런 62타점 16도루 65득점에 OPS 0.767의 성적을 냈다. 타격 성적에서는 타율 0.301 3홈런 52타점 30도루 73득점에 OPS(출루율+장타율) 0.734를 기록한 박찬호에 다소 밀렸다.

올해 신설된 KBO 수비상에서 공동 수상을 할 정도로 수비 쪽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오지환은 ‘우승 프리미엄’에 힘입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오지환은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고, 한국시리즈에서는 2-4차전에서 3경기 연속 홈런을 날려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1994년 이후 29년 만에 통합 우승의 기쁨을 누린 LG는 오지환을 포함해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1루수 부문에서 외국인 타자 오스틴 단이 271표를 획득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투수 상위 3명에게 주어지는 외야수 부문에서는 홍창기가 258표로 1위에 올라 개인 통산 두 번째 황금장갑을 가져갔다.

오스틴은 올 시즌 타율 0.313 23홈런 95타점에 OPS 0.893을 기록, LG의 외국인 타자 잔혹

사를 끊은 동시에 통합 우승에 큰 힘을 보탤다. LG 소속 외국인 선수가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것은 오스틴이 처음이다.

아울러 오스틴은 최고 득표율 유력 후보이던 투수 부문 에릭 페디(NC 다이노스)를 제치고 올해 최다 득표자에 등극했다.

다만 득표율 93.1%로, 역대 최고 득표율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역대 기록은 양의지(두산 베어스)가 2020년 포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할 때 기록한 99.4%(342표 중 340표)다.

홍창기는 올해 141경기에 출전해 타율 0.332, 출루율 0.444, 23도루, 109득점으로 LG 타선의 공격 창병 역할을 묵묵히 해냈다. 득점, 출루율 부문 1위다.

1994년 우승 당시 기록한 구단 한 시즌 최다 배출(5명)을 넘지는 못했지만, LG가 3명 이상의 수상자를 배출한 것은 2001년 투수 신원호·외야수 이병규·지명타자 양준혁이 수상한 이후 22년 만이다.

두산 안방마루 양의지는 9번째 황금장갑을 품으며 역대 최다 수상 단독 2위로 올라섰다. 포수 부문 투표에서 214표(득표율 73.5%)를 획득, 63표를 얻은 박동원(LG)을 151표 차로 따돌렸다.

2014~2016년, 2018~2020년, 2022년 포수 부문에서 7번에 걸쳐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양의지는 2021년 지명타자로 황금장갑을 차지했고, 지난해와 올해 포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동 2위이던 최정(SSG 랜더스)을 제친 양의지는 10회 수상에 빛나는 이승엽에 이어 단독 2위가 됐다. 6년 연속 수상 또한 이승엽에 이어 역대 최다 공동 2위 기록이다.

8번째 포수 골든글러브를 수취하면서 김동수를 밀어내고 해당 포지션 최다 수상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만 36세 6개월 6일에 수상하면서 2021년 강민호(삼성 라이온즈)가 작성한 종전 최고령 기록을 새로 썼다.

2022시즌을 마친 후 두 번째 프리에이전트(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어 4+2년, 최대 152억원의 조건에 친정팀 두산에 복귀한 양의

지는 타율 0.305 17홈런 68타점에 OPS 0.870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부상 탓에 포수로는 후보에 오른 7명 중 가장 적은 773이닝만 소화했으나 가장 뛰어난 타격 성적을 거두면서 황금장갑을 들어올렸다.

NC 다이노스의 슈퍼 에이스 에릭 페디는 267표(득표율 91.8%)를 획득해 투수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페디는 올해 30경기에 등판해 20승6패 평균자책점 2.00을 수확했다.

다승·평균자책점·탈삼진(209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KBO리그 역대 4번째 투수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 한 시즌에 20승, 200탈삼진을 동시에 일군 것은 페디가 역대 5번째이자 외국인 선수로는 처음이다.

정규시즌 MVP에 등극한 페디는 황금장갑까지 쓸어들었다.

다만 페디는 이제 NC를 떠난다. 이달 초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계약기간 2년, 1500만 달러(약 196억9000만원)에 계약에 합의했다.

한화의 젊은 거포 노시환은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다.

245표(득표율 84.2%)를 얻은 노시환은 LG 주전 3루수 문보경(16표), 2021~2022년 이 부문 수상자였던 최정(16표)을 제치고 생애 첫 황금장갑을 받았다.

올해 정규시즌 홈런(31개), 타점(101개) 부문에서 1위를 석권한 노시환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에 앞장서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2루수 부문에서는 259표(득표율 89%)를 얻은 김태성이 2년 연속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됐다. 2021년 유격수 부문 수상자로 뽑혔던 김태성은 지난해 2루수 골든글러브를 받아 사상 최초 사례를 써냈다. 올해 타율 0.335 7홈런 57타점 25도루 104득점 OPS 0.842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면서 2년 연속 최고의 2루수로 우뚝 섰다. 득점, 최다 안타(186안타) 부문 2위, 타율 3위였다.

홍창기가 한 자리를 차지한 외야수 부문에서 구자욱(삼성)과 박건우(NC)가 골든글러브 수상자로 선정됐다. 구자욱은 185표, 박건우는 139표를 획득했다.

올 시즌 막판까지 손아섭(NC)과 타격왕 경쟁을 펼치다 0.336으로 3리 뒤져 2위가 된 구자욱은 골든글러브 수상으로 아쉬움을 풀었다. 2021년에 이어 개인 두 번째 수상이다.

박건우는 프로 데뷔 15년차에 처음으로 황금장갑을 수상하는 감격을 맛봤다.

지명타자 부문에서는 올 시즌 타격왕에 오른 손아섭이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손아섭은 255표(득표율 87.6%)를 받았다.

올 시즌 타율 0.339로 생애 첫 타격왕 타이틀을 거머쥔 손아섭은 지명타자 부문에서는 처음으로 황금장갑을 썼다. 5차례(2011~2014년·2017년) 외야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던 손아섭의 개인 통산 6번째 골든글러브를 차지했다.

LG와 더불어 NC가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고, 두산과 키움, 한화, 삼성에서 1명씩의 수상자가 나왔다. KT 위즈와 SSG는 올해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으나 한 명도 수상하지 못했다. 가을야구를 하지 못한 KIA, 롯데 자이언츠도 수상자 0명에 그쳤다.

오타니 다저스 데뷔전 될 MLB 서울 시리즈, 美 전역에 생중계

내년 3월 고척서...쿠방플레이 중계

오타니 쇼헤이(29)의 LA 다저스 공식 데뷔전이 될 메이저리그(MLB) 서울 시리즈가 미국 전역에 생중계된다.

ESPN과 MLB 사무국은 12일(한국시간) 2024시즌 ‘월드투어’ 중계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 20일과 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정규시즌 개막전은 ESPN이 미국 전역 생중계를 맡았다.

다저스, 샌디에이고의 연고지에서는 구단 전담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고, 나머지 지역은 ESPN이 중계한다.

야구의 세계화를 노리는 MLB 사무국은 다른 나라에서 정규시즌 경기를 치르는 월드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 월드투어 일정 중에는 서울이 포함됐는데, MLB 정규시즌 경기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해당 경기에 샌디에이고에서 뛰는 한국



인 메이저리거 김태성이 나설 예정이라 관심이 쏠렸다. 김태성이 키움 히어로즈 시절 안방으로 쓰던 장소에 비키거로 서게 돼 한국 야구 팬들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여기에 또 다른 화제가 더해졌다. MLB 서울 시리즈가 오타니가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첫 정규시즌 경기가 된다.

오타니는 최근 10년 총액 7억 달러(약 9240억원)에 다저스와 프리에이전트(FA·자유계약선수) 계약을 맺었다. 북미 프로 스포츠 사상 최고 규모의 계약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쿠방플레이가 MLB 서울 시리즈 중계사로 선정됐다.

김연아처럼 완성도 높인다...신지아, 점프 다듬기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차세대 간판 신지아(영동중)가 ‘피겨여왕’ 김연아처럼 고난도 점프 습득보다 기존 점프 완성도 향상에 집중할 방침이다.

신지아는 지난 8일(한국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여자 싱글에서 총점 200.75점을 받아 206.33점을 받은 시마다 마오(일본)에 역전 우승을 허용하고 은메달을 땀.

점프 난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상대 시마다 마오에 주니어 트리플 악셀을 땀 데 이어 2번째 점프로 쿼드러플(4회전) 토루프까지 성공시켰다. 두 점프로만 가산점을 3.77점 챙겼다.

반면 신지아는 초반에 더블 악셀과 트리플 루프를 땀었다. 신지아가 땀 두 점프 모두 시마다 마오가 구사한 기술에 비해 기본 점수가 절반에 불과하다.

결국 신지아는 표현력 등 구성 점수에서 시마다 마오에 앞섰지만 기술 점수에서 밀려 역전을 당했다. 신지아는 지난해에 이어 또 시마다 마오에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정상을 내주며 쓴맛을 봤다.

4회전 점프 구사가 급진무가 됐지만 신지아는 당장 이 기술을 활용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인터뷰에서 “이제 시즌이 시작해서 고난도 연습은 지금은 못할 것 같다”며 “하다 보면 자질한 부상도 많이 생겨서 다른 연습을 아예 못하게 되는 상황도 생겨서 고난도 점프 연습 계획은 코치님과 같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신지아의 대답은 과거 김연아를 연상시킨다. 김연아도 현재 시절 트리플 악셀(3회전 반점프)을 연습한 적이 있지만 이후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 기술을 대회에서 구사하지 않았다. 일본의 아사다 마오가 김연아를 넘기 위해 트리플 악셀에 집착했지만 성공률은 높지 않았고 결국 아사다 마오는 김연아를 넘지 못했다.



김연아는 트리플 악셀을 구사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한 적이 있다. 그는 2008년 전지 훈런지인 캐나다 현지에서 가진 피겨스케이팅 전문 웹사이트 ‘아이스네트웍’과 인터뷰에서 “라이벌 아사다 마오가 구사하는 트리플 악셀을 왜 시도하지 않는지는 질문에 “10살~11살 때 (트리플 악셀) 배웠던 적이 있다. 하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트리플 악셀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익히는 데도 매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술”이라며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을 다듬고 실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지아 역시 과거 김연아처럼 기존 기술을 다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